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9월 교육 내용	04
☼ 9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9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9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9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9월 추천도서	56
☼ 9월 교육활동지	57
☼ 9월 위드스티커	63

9월 교육내용

성령의 열매1



암송 구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첫째주♥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
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1서 4:10)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둘째주♥

“희락”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사도행전3:6)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셋째주♥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14)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넷째주♥

“오래참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12)
*오래 참음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실천 내용

1. 말씀을 통해 배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기
2.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월드

W I T T



Memory Time



사랑

첫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0

♥ 성경 이야기 : 사랑 ▷요한1서 4:7-21

♥ 오늘의 포인트 :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요? (요일 4:11, 12)
- ② 진정한 사랑은 누가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요일 4:10)

★ 교육 활동 - “사랑 팝업 카드”

- ① 위드 활동지에 그려진 카드를 오려 사랑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 ② 완성된 카드에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보세요.(사과하고 싶었던 일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도 좋아요.)
- ③ 카드를 직접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라고 말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 암송구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0
- ♥ 오늘의 포인트 :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사랑 ▷요한1서 4:7-21

성령의 열매 중 그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던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던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한 다면서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변해버리고 변질될 때도 있지요. 이것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나 자신 까지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세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Q 1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1-5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1.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2.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3.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환난 :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절)



★ 삶 속으로 ★

바울은 어려움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믿음이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는 이 전에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6-8 “바울의 기쁨”

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7.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나요? (7절)



★ 삶 속으로 ★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까봐 걱정하였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바울의 걱정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기쁨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2.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4.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6.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권면 :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함.

* 성결 : 거룩하고 깨끗함. / * 음행 : 정조를 깨뜨리는 행위. 비도덕적 성 행위.

* 거룩 : 잘라냄, 분리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 색욕 : 무절제한 성적인 욕망.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인가요? (7절)

--	--	--

★ 삶 속으로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쳐 준 교훈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권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을 소중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몸을 소중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삶의 태도와 부활의 소망**”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 호령 : 지휘하여 명령함. 또는 그 명령.

* 영접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 말씀 속으로 ★

1.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요? (16,17절)

“주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 삶 속으로 ★

바울은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월드



9월 둘째주
2016년 9월 11일~17일



Memory Time



희락

둘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3:6

♥ 성경 이야기 : 희락 ▷사도행전 3:1-10

♥ 오늘의 포인트 :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

②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나요? (6절)

★ 교육활동 - “예수님 그리기”

워드 활동지에 있는 스케치북 안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외쳐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 오늘의 포인트 :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희락 ▷사도행전 3:1-10

성령의 열매 ‘희락’은 기쁨(rejoice)을 말해요.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웃는 순간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 속 깊숙이 샘솟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쁨 소식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앎은뱅이가 성전에 갔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앎은뱅이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루 하루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 진정한 영원한 기쁨, 희락은 아니었어요.

앎은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일어난 앎은뱅이가 기뻐 뛰어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동안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진정한 희락은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Q 1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Pray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전서 5:1-5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1.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해산 : 아이를 낳음.

* 멸망 : 망하여 없어짐.

★ 말씀 속으로 ★

1.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올까요? (2절)

밤에

2. 우리는 모두 무슨 자녀인가요? (5절)

의 자녀, 의 자녀

★ 삶 속으로 ★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바울은 그 날이 밤에 도둑이 갑자기 들어 닥치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날을 함께 기쁘게 기다릴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12-15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2.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13.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 훈계 :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

* 권고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나요? (13절)

서로 하게

지내십시오.



★ 삶 속으로 ★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랐어요.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해요.

또한 우리 중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주어요. 힘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어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어요.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나도 나쁘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럴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람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16-22 “그리스도인의 의무”

-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 19.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 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 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 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 * 소멸 : 사라져 없어짐.
- * 멸시 :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 * 분간 :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거나 가려서 앎.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의 권고대로 빈칸을 채워주세요.

- ① 항상 하십시오. ② 끊임없이 하십시오.
- ③ 모든 일에 하십시오. ④ 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 ⑤ 모든 것을 하고,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 ⑥ 갖가지 의 을 멀리 하십시오.



★ 삶 속으로 ★

바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권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되도록 지켜주실 것이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야 하나님이 늘 생각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나쁜 것은 멀리 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릴 향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부
모
님
과
함
께

성령님, 제 안에 늘 계셔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1-4 “바울의 감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 박해 :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 환난 :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말씀 속으로 ★

1.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 (1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1절)



<input type="text"/>	사람의 교회				
----------------------	----------------------	----------------------	----------------------	----------------------	--------

★ 삶 속으로 ★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도 자랑하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어느 때에 기뻐하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간다는 소식에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저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워드

WITW

9월 셋째주
2016년 9월 18일~24일



Memory Time



화평

셋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에베소서 2:14

♥ 성경 이야기 화평 ▷ 에베소서 2:14-22, 마태복음 5:9

♥ 오늘의 포인트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14절)

②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9절)

★ 교육활동 - “화평 모자이크”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화평’ 모자이크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부족
함을 채우고, 도우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아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 오늘의 포인트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화평 ▷에베소서 2:14-22, 마태복음 5:9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 이예요. 한글 성경 ‘화평’으로 번역된 원어 샬롬(Shalom)에는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평화로움 ② 나의 마음이 평화로움 ③ 정의 ④ 차별하지 않음 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조화로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은 그저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온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닮아 세상에 화평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이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5-10 “공의로우신 하나님”

5.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7.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8. 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9.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0.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 공의 :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 권능 :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5절)

성도들이 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 삶 속으로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복된 것이고, 오히려 기뻐 할 일이에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받기위해 준비되는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실 것이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1-3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어떤 일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청하고 있나요? 빈 칸을 채워보세요.
(1절)

--	--	--



께서 다시 오시는 일

--	--	--	--

우리가 그 분 앞에

--	--	--

일

★ 삶 속으로 ★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거짓편지에 속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거짓말들에 성도들이 속아서 흔들리고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따라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죽이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굳게 믿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들이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원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11-17 “우리를 택하심”

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13.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4.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15.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6.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17.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 미혹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 불의 :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15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을

★ 삶 속으로 ★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거짓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1-5 “바울의 기도요청”

1.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십니다.
4.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 신실 : 믿음직하고 착실함

* 인내 :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 말씀 속으로 ★

1. 다음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3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을(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십니다.”



★ 삶 속으로 ★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바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면서 사랑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워드

W I T I

9월 넷째주
2016년 9월 25일~10월 1일



Memory Time



오래참음

넷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1

♥ 암송구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12

♥ 성경이야기 오래참음 ▷야고보서 1:12, 창세기 6-7장

♥ 오늘의 포인트 오래참음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②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 교육활동- “꽃이 피었어요.”

준비된 재료로 '사탕 꽃'을 만들고, 예쁜 꽃이 피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오래참음'의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12

♥ 오늘의 포인트 오래참음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오래참음 ▷야고보서 1:12, 창세기 6-7장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변을 탓하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땅에 아주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물도 없는 곳에서 몇 년이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묵묵하게 배를 만들었고, 그 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요.



Q 1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오래참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 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6.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7.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8.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11.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12.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 무절제 : 절제함이 없음.

* 절제 :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 양식 :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

* 본 :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듭 명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0절)



★ 삶 속으로 ★

바울은 밤낮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내어 던지고 게으르게 생활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신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성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사람들에게에도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13-18 “선한 일 하다 낙심말기”

13.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7.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 * 낙심 :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 * 복종 :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

★ 말씀 속으로 ★

1. 2장 13절의 말씀을 완성해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을 하다가
 하지 마십시오.

★ 삶 속으로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하였는데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겐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바울과 성도들이 그랬듯,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되,
그 과정이 혹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1-11 “복음에 맞는 말”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4. *신화와 끝없는 *죽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5.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 교리 :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 신화 : 신비스러운 이야기.

* 죽보 :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

* 경륜 :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3,4절)

디모데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	--	--	--

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	--

와 끝없는

--	--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 삶 속으로 ★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교회를 돌볼 것을 부탁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말싸움하기를 좋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막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 지는데 목적을 두지 않은 이야기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으로 꾸며 낸 이야기나 만들어 낸 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나라에 목적을 둔 것들로 더 채워질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거짓된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12-17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 훼방 : 남을 헐뜯어 비방함. 남의 일을 방해함.

* 사례 :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말씀 속으로 ★

1. 빈칸을 알맞게 채워주세요.(13절)

- 내가 전에는 요
 요 었습니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15절)

★ 삶 속으로 ★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적은 자신과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 바울뿐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빛진 자임을 기억 해야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일주일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조심스레 안아주시며 아침 인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가 이렇게 좋은 계절을 보내며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가족과, 친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는 우리 ○○(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혜로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후 친구를 꼬옥 안아주시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bed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잠자리 들기 전 친구에게 시를 읽어 주세요.

"이제 곧 가을이 오는 계절이 되었네.
울 가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 볼래?"

<익어가는 가을>

- 이해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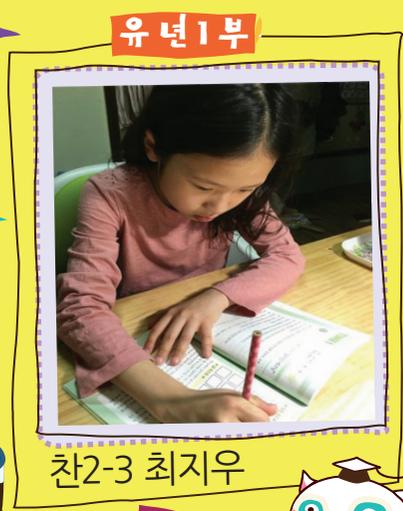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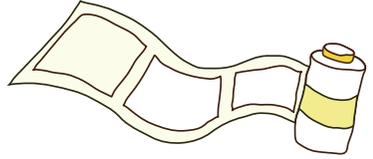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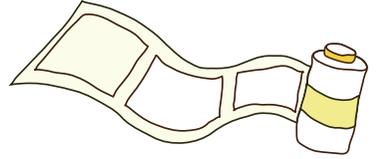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유니드 PHOTO



유년의 PHOTO



유년2부

유년2부



1-9 김선호



1-14 차서린

유년2부



2-1 김승민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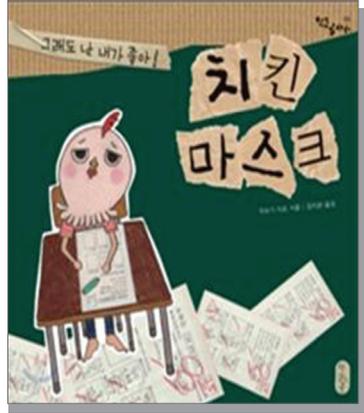
2-5 안시현





9월

제목 : 치킨 마스크
 글/그림 : 우쓰기 미호
 옮김 : 장지현
 출판 : 책 읽는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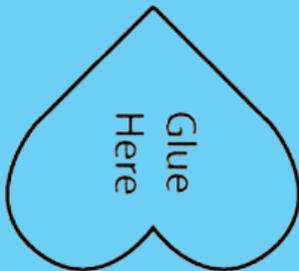


「치킨 마스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봐 온 작가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담아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가면’은 무척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한 번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아이들의 개성이나 장점, 재능을 가면에 빗대어 이야기를 꾸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변신 욕구를 제대로 보여 주지요. 치킨 마스크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볼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한 일이겠지요!

이 책은 스스로의 장점, 나아가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북돋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모든 장점이 소중한다는 것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 팝업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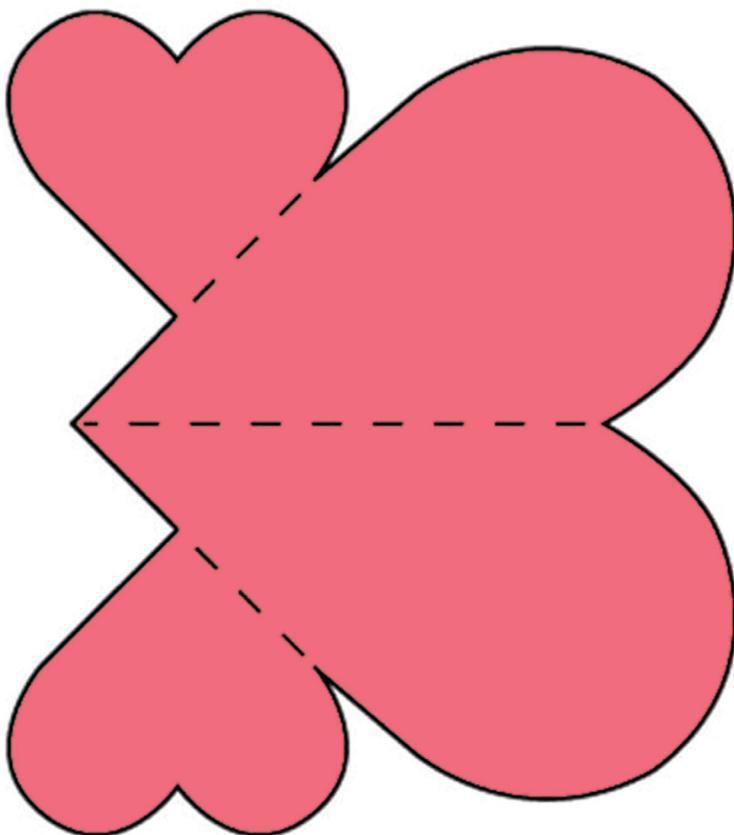




교육활동지

첫째주(9월4일)

“사랑 팝업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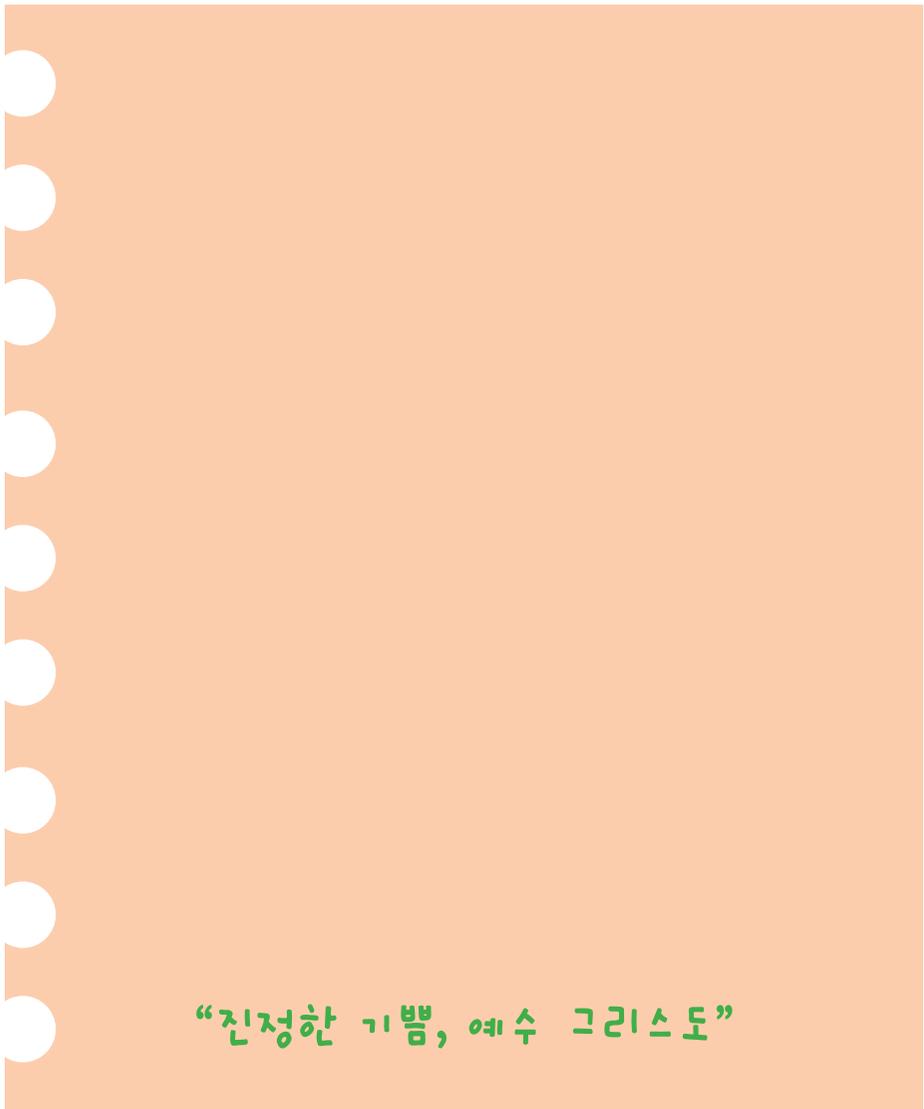




교육활동지

둘째주(9월11일)

예수님 그리기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꽃이 피었어요”

*준비물: 종이컵, 색종이 조각, 가위, 풀, 사탕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